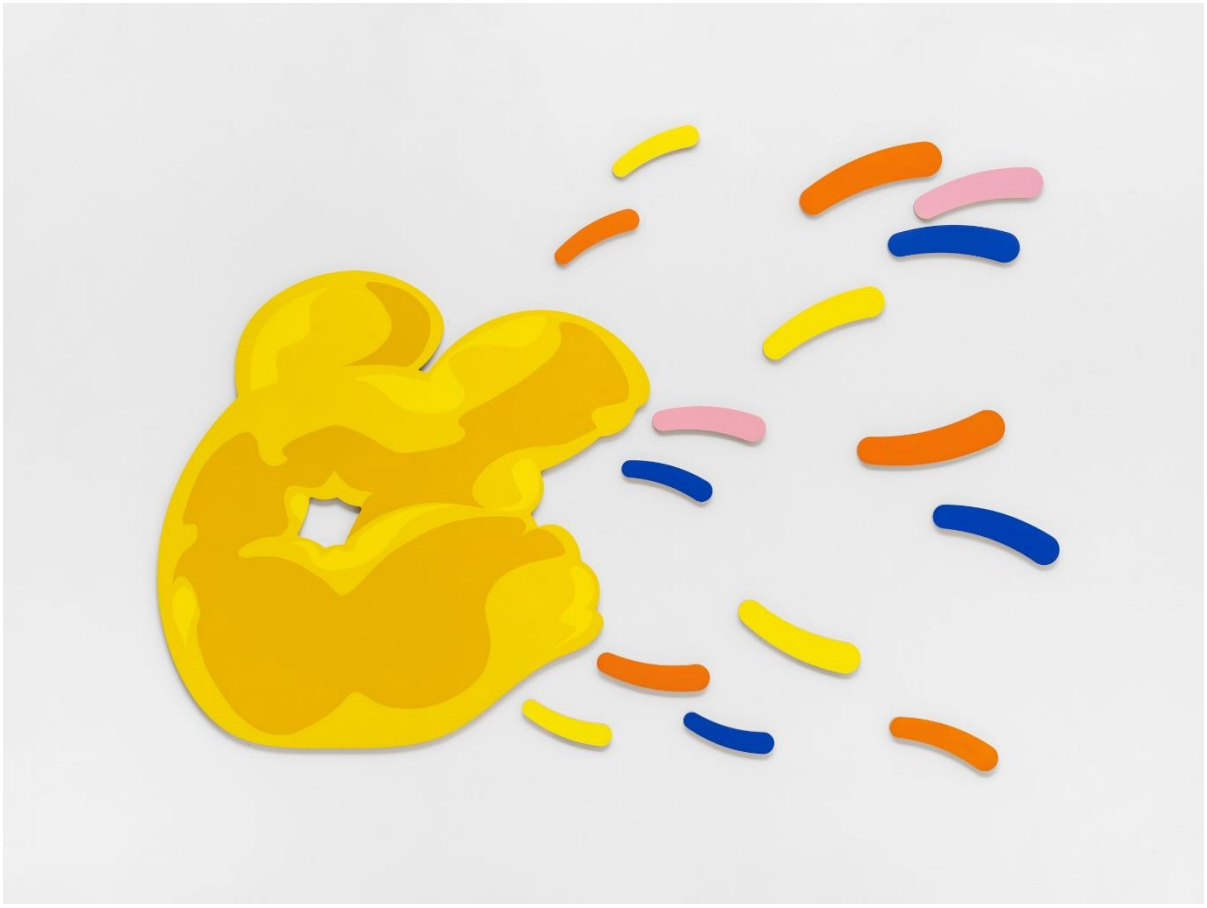
學古齋
Hakgojae
Gallery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학고재 보도자료 2025. 02. 26. / 작성자: 이소정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김재용 개인전

《런 도넛 런 Run Donut Run》



김재용, 〈런 도넛 런 *Run Donut Run*〉, 2024, 자작나무 합판에 아크릴릭 물감, G10 브라운 레진, 128x120x2.4cm

전시제목 : **김재용 개인전《런 도넛 런 Run Donut Run》**

전시기간 : 2025년 2월 26일(수) – 2025년 4월 5일(토)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조각 총 9 점

○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50226-20250405_김재용, Run Donut Run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5년 2월 26일(수)부터 4월 5일(토)까지 김재용 개인전《런 도넛 런 Run Donut Run》을 연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학고재에서 선보이는 세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는 김재용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회화와 조각을 통해 소개한다. 김재용은 주로 도넛 모양의 도자를 제작하고, 그 위에 다채로운 스프링클을 얹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화려한 색감과 반짝이는 크리스털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긴다. 단순한 형태 속에 다채로운 색감과 장식적 요소를 담아 시각적 즐거움과 따뜻한 정서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도넛'은 달콤함과 안락함의 상징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달한다. 그는 일상적 소재를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서 놓치기 쉬운 즐거움과 아름다운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감정을 되찾도록 유도한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작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작한 작품 9점을 선보인다.

2. 전시 주제

김재용은 도넛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 삶에 가까이 자리한다. 작가에게 도넛은 트로피와 같은 기념품이자, "삶의 지표들"이기도 하다. 그는 꿈과 목표들을 도넛에 투영하여 담아낸다. 전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입구에서 벽면에 설치된 작품이자 이번 전시 제목인 〈런 도넛 런 *Run Donut Run*〉을 볼 수 있다. 팬데믹을 겪고 난 후 평범한 일상을 돌아가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뒤처져버린 나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쪽 공간에서는 완성된 결과물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강조한 작품이며, 각자의 삶에서의 고유한 의미를 작품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는 작품 〈달콤한 지식 *Sweet Knowledge*〉으로 관객을 이끈다. 〈달콤한 지식 *Sweet Knowledge*〉은 도넛의 스프링클을 단순화된 도형으로 변형해 모스 부호와 같은 기호적 언어로 재구성한 회화 작품이다.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는 구성은 균형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공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내면의 위안을 이끌어 내며, 평온과 안정감을 전달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다음 도넛 조각 작품 <수고했어! *You Did Well!*〉이 자리하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조각은 트로피로서 작용하며, 목표를 향한 욕망과 성취를 반영한다. 작가는 경쟁과 결과 중심의 사회상을 보여주면서도, 그 이면에 자리한 과정의 가치를 환기한다.

전시장 안쪽 방에 자리한 정면 벽을 바라보면 백여 개의 〈도넛 페인팅 시리즈 *Donut Painting Series*〉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화려한 색감과 장식적 요소에서 출발하여 각자의 목표와 꿈에 관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한다. 작품에 내재한 감정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시 서문을 작성한 조새미 미술비평가는 "작가는 도넛을 통해 욕망의 끝없는 순환을 재현하면서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안한다. 김재용의 도넛은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우리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자화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각각의 도넛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도넛은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 김재용의 작품은 익숙한 일상에서 반짝이는 감정과 사유를 떠오르게 하며, 꿈꾸는 것들을 향해 다시금 뛰게 한다.

3. 작품 소개

〈런 도넛 런 *Run Donut Run*〉
2024
자작나무 합판에 아크릴릭 물감, G10 브라운 레진
128x120x2.4cm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는 도넛 설치 작품 〈런 도넛 런 *Run Donut Run*〉이 전시장 입구에 자리한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도넛의 움직임은 호기심을 자아내며, 관객들을 전시장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스프링클은 빠르게 달리는 도넛의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유머러스하면서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움직임을 강조한다. 스프링클들은 마치 흐르는 땀방울처럼 보이며, 도넛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런 도넛 런 *Run Donut Run*〉은 유쾌함과 조형미가 결합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작품은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구성 속에서 질서와 균형의 미학이 강조된다. 일정한 패턴과 리듬감 있는 구성이 작품 전체에 조화를 부여하며, 구조적 아름다움 속에서 시각적 안정감을 전달한다. 반복적인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리듬은 작품에 생동감을 더해, 관람객에게 끊임없는 움직임의 흐름을 전달한다.

〈달콤한 지식
***Sweet Knowledge*〉**
2025
캔버스에 아크릴릭 물감
74x112.1x3cm(Top each),
150.5x112.1x3cm(Bottom each)

〈달콤한 지식 *Sweet Knowledge*〉은 도넛의 스프링클을 활용해 우리의 삶을 닮은 책장의 모습으로 추상화한 작품이다. 도넛 위에 흩뿌려진 작은 조각들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책의 형상을 이루며, 색다른 시각적 은유를 형성한다. 일상의 익숙한 요소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가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 돋보인다.
차곡차곡 쌓인 책들은 마치 리듬감 있는 음악처럼 조화로운 형태를 이룬다. 질서와 균형 속에서도 개별성이 돋보인다. 반복적인 패턴은 관객들에게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책이 지닌 시간의 흐름과 지식의 축적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 스프링클은 세워지고 눕혀지며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 서로를 의지하고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닮아 있다. 또한, 책이 쌓이고 정렬되는 방식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축적되는 과정과도 비슷해 보인다. 책이 전달해 주는 정신적 위안을 떠올리며,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배움이 어떻게 서로 지탱하고 있는지를 되새기게 한다.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도넛 페인팅 시리즈
***Donut Painting Series*〉**
2022-2025
도자, 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물감, 아크릴릭 물감, 레진, 크리스털
190x232x13cm

김재용은 화려한 색채의 도넛 도자 조각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조형을 넘어, 문화적 융합과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며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 왔다. 작가는 한국의 민화적 요소, 서양 신화 속 유니콘, 중동의 아라베스크 문양 등을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동서양을 넘나들며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요소들이 하나의 조형 언어로 융합되어 조화를 이룬다.
전시장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운 도넛 도자 연작이 펼쳐진다.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유약의 색감과 섬세한 장식들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각 도넛이 가진 개별적인 문양과 색채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강렬한 개성을 발산한다. 반복적으로 배치된 도넛들은 단순한 조각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장식적 패턴을 형성하며,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4. 작가 소개

김재용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미국 웨스트 하트퍼드 하트퍼드 대학교 하트퍼드 아트 스쿨 조각과를 졸업한 후 미국 블룸필드 힐스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자과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학고재(2020, 2024), 파워롱 뮤지엄(2019), 보이시 아트 뮤지엄(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더 리뷰 파라다이스시티〉(2022,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인천), 《모스코-서울: 커먼 아이디어스〉(2021, 뮤지엄 모스코, 모스코) 등이 있다. 파워롱 뮤지엄(상하이), 데노스 뮤지엄 센터(트래버스 시티), 브리지포트 대학교(브리지포트), 하트퍼드 대학교(웨스트 하트퍼드)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넛, 욕망을 비추는 거울 – 김재용의《Run Donut Run》

조새미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전시 공간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도넛 조각의 풍경은 현대 소비사회의 축소판이자 귀환을 기다리는 자화상이다. 김재용의 도넛은 순수한 감각적 유희의 대상이자 욕망을 반영하는 기호일 뿐 아니라 응원이라는 메시지이다. 김재용은 디지털 기술과 수공예적 접근 방식을 혼합해 독자적인 방향을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제시한다. 그는 손수 제작하고 개별적으로 채색하며, 각각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대량 생산의 익명성과 소비의 일회성을 거부한다. 이러한 방식은 대량 생산과 희소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역설적 구조를 드러내며, 도넛이 단순한 소비의 기호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김재용은 개별성이 강조된 오브제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개인화의 욕망과 연결되는지를 탐구한다.

앤디 워홀 (Andy Warhol, 1928-1987)이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 소비사회의 냉소적인 단면을 드러냈다면, 김재용은 '개별성이 강조된 오브제'를 통해 소비사회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욕망이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탐구한다. 그의 도넛들은 대량 생산된 공산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수작업을 거쳐 개별성이 부여되기에 희소가치의 역설을 반영한다. 소비자가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혹하는 오브제 (object of desire)'인 것이다.

그의 도넛은 "한없이 낙천적인 광택"[1]을 지닌 채 관람객을 유혹하며, 시각적 유혹과 촉각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펼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소비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트로피이자 자기 응원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김재용의 도넛은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 경쟁 속에서 상실된 자기 성찰과 내면의 응원을 희구하는 오브제이다. 본고에서는 김재용이《Run Donut Run》을 통해 던지는 철학적 질문과 예술적 실험을 탐구하며, 그의 신작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도넛과 트로피

도넛의 달콤함은 맛이 아니라 빛나는 표면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표면은 거울처럼 반사되며 감각을 자극한다. 주변 환경과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표면은 현대미술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표면처리 기법이다. 브랑쿠지 (Constantin Brâncuși, 1876~1957)는 〈공간 속의 새 Bird in Space〉(1923)에서 유기적인 형태와 광택을 통해 형이상학적 본질을 탐구했다. 반면 제프 쿤스 (Jeffrey Lynn Koons, 1955~)의 〈토끼 Rabbit〉(1986)는 장난감 풍선 토끼를 연상시키는 키치적 형상과 반짝이는 표면으로 소비사회의 피상성을 강조했다. 아니쉬 카푸어 (Anish Mikhail Kapoor, 1954~)는 〈클라우드 게이트 Cloud Gate〉(2006)와 〈스카이 미러 Sky Mirror〉(2015)와 같은 작품에서 광택을 통해 공간과 관객의 관계를 확장하는 실험을 했다.

전시 공간 입구에 설치된 은색 크롬 도넛 연작 <You Did Well Donut>(2021-2023)의 광택은 감각적 즐거움과 유희적 경험을 제안한다. 빛나는 트로피를 닮은 표면은 도넛의 실재감을 비현실적으로 변형시키며, 관객에게 익숙한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이 작업은 서로서로 비추는 상황을 통해 경쟁과 욕망의 과잉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했다. 서른 여 점의 기둥 위에 위치한 다양한 도넛을 제시하는 이 작업은 성공의 상징과 물질적 욕망의 관계도 반영한다. 이는 각 도넛이 연속적인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내고, 관객이 그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전시 공간에서 더욱 강화된다. 공간 속의 도넛은 주변 공간과 관객을 반사하며, 관객과 공간의 상호작용과 감각적 몰입을

[1] 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소극 다음은 무엇? 결괴의 시대, 미술과 비평』, 워크룸, 2022, p. 74.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유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You Did Well!>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일그러진 자화상이 된다. 거울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도구이자,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매개체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Jacques Lacan, 1901-1981)의 거울 단계 (mirror stage) 이론은 인간이 거울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지만, 그 자아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재용의 도넛 작품들은 이러한 거울 단계의 함의를 반영하며, 반사되는 표면을 통해 관객이 자신에게 직면하도록 한다. 빛나는 조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되묻는 욕망의 거울이 된다. 이 작업은 동시대 현상이 만들어낸 매혹적인 거울이다.

그러기에 그의 도넛이 지닌 '한없이 낙천적인 광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비추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반영한다. 김재용의 작품은 자아 형성 과정에서 거울이 가지는 역할을 다시금 질문한다. 그 반짝이는 도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자신을 목격하게 된다.

도넛, 달콤한 문

<Sweet Knowledge>(2025)는 중앙 갤러리 벽면 전체를 채운 설치 작업으로 관객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작업은 마치 도서관의 책장처럼 배열되어 있으며, 무한히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지식과 쾌락이 어떻게 혼재되는지도 시각화한다. 이 작업은 반복과 과잉의 시각적 스펙터클을 형성하며, 화려한 색채의 배열과 끝없는 리듬을 통해 관객을 압도한다. 작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작업을 멈춘다고 말하는데[2] 이는 감각적 과잉의 경계를 실험하는 방식이다.

이 작업은 문(門)이라는 전환의 은유를 통해 관객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캔버스가 회전하면 숨겨진 공간이 드러날 것 같은 구성을 통해 작가는 루이스 캐럴 (Lewis Carroll, 1832~1898)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865) 속 토끼굴이나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의 옷장』(1950)의 옷장 같은, 차원 이동의 상징을 구현했다. 이는 영화 <매트릭스 2: 리로디드 The Matrix Reloaded>(2003)에서 주인공 네오가 소스 (Source)로 통하는 문을 찾아야 하는 상황 또는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君たちはどう生きるか>(2023)에서 마호토가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문을 찾는 상황과 유사하다. <Sweet Knowledge>는 내면을 탐색하는 통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가정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제시하며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작가가 스프링클스 또는 도넛의 색의 배열로 캔버스를 채운 이유는 무엇일까? 도넛, 케이크 같은 달콤함을 상징하는 모티프는 동시대 미술과 영화 등 창작의 영역에서 부와 권력, 삶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소멸할 운명에 놓인 유한한 쾌락을 상징한다. 작가는 도넛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2] 김재용 작가 인터뷰, 하남 작업실, 2025년 1월 13일, 인터뷰: 조새미.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배치함으로써 감각적 유혹과 허무, 욕망과 과잉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이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 바니타스 (Vanitas)와도 맞닿아 있는데, 김재용의 작업은 "세속적인 빛을 내뿜으며 시선을 욕망하는 응시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정물화와 닮았다.[3] 다만 정물화의 방식이 아니라 팝아트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김재용의 도넛은 베이글로 교체가 가능할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2022)에 등장하는 에브리씽 베이글 (Everything Bagel)은 허무주의와 무한성을 상징하는 메타포이다. 이 베이글은 둥근 형태를 공유한다는 점과 순환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김재용의 도넛과 유사하다. 하지만 도넛은 대중문화에서 쾌락과 유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그 달콤함으로 인해 즐거움이나 욕망의 아이콘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베이글과는 차별화된다.

김재용이 베이글이 아닌 도넛을 선택한 것은 인생의 허무함이나 절망보다는 삶의 모순적 즐거움과 혼란을 강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재용의 도넛은 무한 긍정을 향한 욕망의 메타포이다. 도넛은 감각적 유혹의 순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며, 욕망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김재용은 이 과정을 환희의 기쁨과 황홀경과 같은 즐거움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색채의 상호작용: 요제프 알버스와의 대화

<Sweet Knowledge>의 각각의 작업은 검정, 주황, 노랑, 파랑, 분홍, 골드의 여섯 가지 색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김재용의 색채 사용은 색의 상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던 요제프 알버스 (Josef Albers, 1888~1976)의 색채 이론 및 작품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4] 알버스는 『색의 상호작용』(1963)에서 동일한 색도 배경색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색이 인접한 색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심리적, 지각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김재용 역시 도넛을 개별적인 조형 요소이자 색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색면을 겹겹이 쌓거나 대비되는 색을 배치함으로써 감각적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그의 강렬한 원색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은 알버스의 <사각형에 대한 경의 Homage to the Square>와 유사한 색의 상대성 실험을 변용한 것이다.

김재용은 마치 알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공장에서 제조된 물감의 원색 그대로를 캔버스에 도포했다. 이는 2개 이상의 물감을 혼합하면 각각 색의 특정 성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

[3] "바니타스 회화는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며 죽음 앞에서는 부귀영화와 쾌락이 부질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장치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사치품 모티프를 통해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조새미, '이방인의 심리학' (김재용 개인전 평문) in: 김재용, 『도넛 피어, Donut Fear』, 학고재, 2020, pp. 7-25, p. 10.

[4] 알버스는 그의 저서 『색의 상호작용 *Interaction of Color*』에서 순수한 색의 시각적 효과, 나아가 지각의 윤리학 (Ethics of Perception)까지도 연구했다. Eva Díaz, T*he Experimenters, Chance and Design at Black Mountain Colle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2015, pp. 15-52.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위함이었다. 또한 색의 물리적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화면에서 최대한 균질한 표면을 만들려고 했다. 색면을 캔버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붓 자국과 같은 작가의 개인적 몸짓의 흔적도 배제하고자 했다. 이는 관객이 여섯 가지 색의 변주에 집중하는 감각적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Sweet Knowledge>는 인간의 감각 경험과 회화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색면추상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색면추상은 색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는 예술로, 엘스워스 켈리 (Ellsworth Kelly, 1923~2015)와 같은 작가들이 색의 힘과 공간적 몰입을 탐구한 실험적 미술이었다. 김재용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색면을 배치하고, 비율을 조정하며 시각적 조화를 찾은 뒤 이를 캔버스로 옮기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마치 켈리가 '익명에 의한 (anonymous) 작품'을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 작가의 개인적 제스처를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형태와 색 자체의 순수성을 탐구하는 방식과 닮았다. 켈리는 색의 면적과 조합을 탐구함으로써 색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는데,[5] 김재용 역시 각각의 색의 면적과 조합의 변주를 통해 색의 물리적 존재감을 강조했다.

또한 김재용은 <Sweet Knowledge>에서 색이 어떻게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동시에 공간 지각을 확장하는 모듈화한 건축적 매체로 변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실험했다.

도넛의 촉각적 경험: 색과 형태의 변주

김재용의 도넛은 화려한 색감을 통해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동시에, 색의 운동감을 통해 마음 내부의 은밀한 곳도 들여다본다. 그는 약 95점의 연작 <Donut Painting Series>(2022~2025)에서 시각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감각적 경험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기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역경, 행복과 환희를 색채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Donut Painting Series>은 지름 30cm 정도의 도넛 작업의 군집이다. 이 연작에서 도넛은 색을 고립시키는 그물과 같다. 작가는 도넛을 캔버스로 생각하고 색의 상호작용을 실험하는 무대로 삼았다. 층층이 쌓인 색, 활기 넘치는 색을 품고 있는 도넛은 색을 위한 지지대로 기능하며, 색을 담아내고 해체하는 그릇이 된다. 이 작업을 바라보았을 때 다층적 감각에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Donut Painting Series>에서 색채는 시각적 환영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색은 살의 색이기도 하고, 초현실적 황홀경의 전율이기도 하다. 반짝이는 유약과 겹겹이 쌓인 색의 층은 엷은 막을 형성하고, 도넛의 둥근 형태는 색을 내부로 끌어들인다. 어떤 전조증상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은 도넛 안에서 벌어지는 색의 운동감에서 비롯된다. 속도감 있게 회전하는 원심력과 바닥 모를 심연으로부터의 중력 에너지가 도넛을 끌어당긴다. 도넛 중앙에 비어 있는 구멍은 이러한 에너지의 탈출구와 같다. "그 구멍은 때로는 결핍과 공허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공간을

[5] Press release, Ellsworth Kelly: Chatham Series, Museum of Modern Art, May 23–September 8, 2013, From: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1329 [접속일: 2025년 1월 29일].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의미하기도 한다."[6]

<Donut Painting Series>는 작가의 개인적인 치유 과정을 담아낸 작품이기도 하다. 색약을 가진 작가가 색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넛을 하나의 실험적 캔버스로 삼은 것이다. 도넛 위에서 색채의 향연을 펼치며 스스로를 이해하려 한 결과, 물질적 토대와 색채, 형태는 작가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했다. 이 작업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을 특별한 회복력을 가져다주었다.

소셜 미디어와 도넛의 증폭 메커니즘

소셜 미디어의 시대, 시각적 자극이 욕망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현실에서 시각은 위력을 가진다. 화려한 색감과 반짝이는 표면을 가진 도넛은 '좋아요'를 수반하는 미적 기호이다. 김재용은 도넛을 통해 현대 소비문화가 어떻게 시각적 유혹을 활용해 욕망을 생산하는지 탐구하며 이러한 현상을 적극 수용한다. 그의 도넛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통해 욕망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탐험하는 것이다.

김재용의 도넛은 이미지의 유혹은 더욱 강렬해지고, 소비는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 소비의 일시성과 순환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도넛은 먹는 순간 사라지며, 소비되는 즉시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소비를 통해 순간적인 쾌락을 얻고, 그 쾌락이 사라지면 다시 새로운 소비 대상을 찾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소비 패턴과도 맞닿아 있다. 스프링클스 모티프가 반복되는 방식은 소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메타포이다. 그의 도넛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욕망의 흐름 속에서 기능하는 기호인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가 바이럴 (viral)이 되는 데에는 시각적 강렬함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도넛이 품은 선명한 색채와 반짝이는 표면은 온라인에서도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통적으로 미술은 갤러리나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한정되어 감상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은 미술의 전파와 수용 방식에 혁명적 균열을 가져왔다. 김재용의 도넛은 이러한 문화적 역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예술의 의미와 그 수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도넛, 욕망의 순환과 삶의 기쁨

김재용의《Run Donut Run》은 소비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의 구조를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이자, 감각적 즐거움을 강화하는 실험적 장치이다. 도넛의 화려한 색채와 광택은 감각적 유혹을 극대화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과잉과 허무를 직시하게 한다. 대중문화의 키치적 아름다움을 수용하면서도, 욕망과 과잉 소비가 얽힌 결핍이라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조형적으로 드러내는 김재용의 도넛은 우리가

[6] 김재용 작가 노트, '달콤함과 단단함의 공존, 도넛 작업을 통해 본 인생과 교육' (2025) 중에서.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욕망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자아를 탐색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도넛이 반짝이는 표면을 통해 주변 환경과 관객을 반사하는 방식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상기시킨다.

《Run Donut Run》은 색면추상의 몰입감, 팝아트의 소비적 기호, 그리고 바니타스의 허무적 메시지를 융합하여 유희와 허무, 과잉과 결핍을 동시에 드러낸다. 달콤한 유혹과 반복되는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욕망의 구조도 재해석한다. 작가는 도넛을 통해 욕망의 끝없는 순환을 재현하면서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안한다. 김재용의 도넛은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것이다.

6. 작가 약력

김재용

1973 서울 출생
현재 서울과 뉴욕에서 거주 및 작업

학력

2001 미국 블룸필드 힐스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자과 석사 졸업
1998 미국 웨스트 하트퍼드 하트퍼드 대학교 하트퍼드 아트 스쿨 조각과 학사 졸업

재직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부교수

개인전

2025 런 도넛 런, 학고재, 서울
2024 스윗 스웻, 학고재, 서울
2023 씽크 빅!,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2021 도넛 피어, 탕 컨템포러리 아트, 방콕, 태국
숏!, 신세계 갤러리, 대구
2020 도넛 피어, 학고재, 서울
가든 오브 도넛, 믹시, 선양, 중국
2019 아이 러브 도너츠, 파워롱 뮤지엄, 상하이, 중국
도넛 에버 포겟 미, 보이시 아트 뮤지엄, 보이시, 미국
2018 위 러브 도너츠, 라에비뉴, 상하이, 중국
2017 아이 러브 도넛, 갤러리 바이 더 하버, 하버 시티, 홍콩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2016 하이라이티드 솔로 아트 쇼: 김재용, 환타이 뮤지엄, 쯔보, 중국
뻥하고 터지는 도넛,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 뉴욕, 미국
도넛 생각이 자꾸나…., 마샬 M. 프레데릭스 조각 박물관, 새기노, 미국
2015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데노스 뮤지엄 센터, 트래버스시티, 미국
2014 도넛 러시,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 뉴욕, 미국
아이 러브 도너츠, 헌터돈 아트 뮤지엄, 클린턴, 미국
2013 도넛 필드, 워터폴 맨션 & 갤러리, 뉴욕, 미국
2012 도넛에 대한 욕망, 블랭크 스페이스, 뉴욕, 미국
2004 스네일링, 뉴 센츄리 아티스트 갤러리, 뉴욕, 미국
2003 신작, 비주얼 리서치 갤러리, 뉴 헤이븐, 미국
1999 모모 온 웰, 한스 바이스 뉴스페이스 갤러리, 맨체스터 커뮤니티 대학, 맨체스터, 미국
근작, 우드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 뮤지엄, 사우스 윈저, 미국
1998 저스트 모모, 더 갤러리, 브리지포트 대학교, 브리지포트, 미국

주요 단체전

2023 아트바젤 홍콩 2023, 홍콩
2022 해피 홀리데이, 신세계 갤러리, 서울
해피팝!, 신세계 갤러리, 대전
에이씨에스 하이라이트, 아트조선 스페이스, 서울
더 리뷰,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 인천
플라워, 초이앤초이 갤러리, 서울
에코 오브 뷰티, 아이콘시암, 방콕, 태국
2021 더 리뷰,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모스코-서울: 커먼 아이디어스, 모스코 뮤지엄, 모스코, 러시아
2020 슬로우아트 아시아, 워터폴 맨션 & 갤러리, 뉴욕, 미국
프레젠트 이스 프레젠트, 비트리 갤러리, 서울
2019 애프터글로우,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오프 메뉴: 음식에 관한 현대미술, 베드퍼드 갤러리, 윌넛 크리크, 미국
맛있는 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세라미끄 구르망드, 파운데이션 드엔터프라이스 베르나르도, 리모주, 프랑스
대화: 아시아 현대 미술, 허미티지 뮤지엄 & 가든스, 노퍽, 미국
불과 물,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 뉴욕, 미국
돈 콜 잇 어 컴백, 아뜰리에 아키, 서울
2018 가을 전시,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 뉴욕, 미국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2017 뉴 북, 워터폴 맨션 & 갤러리, 뉴욕, 미국
어 컵 오브 슈가, 앤서니 브루넬리 파인 아트, 빙엄턴, 미국
썸머 랩 업,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 뉴욕, 미국
루미넌스,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 뉴욕, 미국

2016 썸머 살롱, 앤서니 브루넬리 파인 아트, 빙엄턴, 미국
뉴 메모리즈 인 홀리데이,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그랜드 밸리 주립 대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전, 그랜드 밸리 주립 대학 아트 갤러리, 앨런데일,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 뮤지엄 오브 아트 & 히스토리, 랭커스터, 미국
믹싱 미디어스, 마나 컨템포러리, 저지시티, 미국

2015 도넛 크레이즈, 필라델피아 아트 얼라이언스, 필라델피아, 미국
아시아 현대 도자, 중국미술학원, 항저우, 중국
고요한 아침 너머, 릴스트리트 갤러리, 시카고, 미국
리: 컨템포러리 – 발효된 정신, 워터폴 맨션 & 갤러리, 뉴욕, 미국
글레이즈드 & 디퓨즈드, 페린 컨템포러리, 노스애덤스, 미국
봄 전시, 앤서니 브루넬리 파인 아트, 빙엄턴, 미국
이머전: 비커밍 유, 워터폴 맨션 & 갤러리, 뉴욕, 미국
스윗 애즈 원, 청두 국제금융센터, 청두, 중국

2014 더블 미러: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 아메리칸 대학 미술관, 워싱턴 D.C., 미국
살롱 3, 앤서니 브루넬리 파인 아트, 빙엄턴, 미국

2013 여름날의 송시, 워터폴 맨션 & 갤러리, 뉴욕, 미국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헌터돈 아트 뮤지엄, 클린턴, 미국
예감 아트 마켓, 예감 아트 스페이스, 퀸즈, 미국

2012 브랜드 뉴 5: 소장가치, 유진 갤러리, 서울
아트 앤 디자인 교수전, 조지 시걸 갤러리, 몬트클레어 주립 대학교, 몬트클레어, 미국

2011 블랭크 스페이스, 블랭크 스페이스, 뉴욕, 미국
제 13회 도쿄-뉴욕, 닛폰 갤러리, 뉴욕, 미국

2010 골드파브 레트로스펙티브, 도널드 앤드 린다 실페 갤러리,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렛 데어 비 화이트, 멜템 비에리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2009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현대 도자, 스위트워터 센터 포 더 아츠, 스위클리, 미국
LEAP 어워드 파이널리스츠, 컨템포러리 크래프트, 피츠버그, 미국

2008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마시코 뮤지엄 오브 세라믹 아트, 도치기, 일본
크기는 상대적이다, 도널드 앤드 린다 실페 갤러리,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2007 드림스 인 클레이, 조지 시걸 갤러리, 몬트클레어 주립 대학교, 몬트클레어, 미국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2006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한국공예문화진흥원 갤러리, 서울
리빙 인 비트윈 타임, 엘가 위머 PCC 갤러리, 뉴욕, 미국

2005 갈망, 엘가 위머 PCC 갤러리, 뉴욕, 미국
8인의 한국 작가, FGS 갤러리, 잉글우드, 미국
슬라이드 슬램, 리얼 아트 웨이스, 하트퍼드, 미국

2004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뉴욕 - 파이어 워크, 스페이스 월드 갤러리, 롱아일랜드 시티, 미국
알룸스, 필립 알란 갤러리, 뉴욕, 미국

2003 페이스 투 페이스, 더 스테이지 갤러리, 메릭, 미국
제너레이션스: 임펜딩 리니지, 아트 앤드 인더스트리 갤러리, 샌디에이고, 미국
영 탤런트, 워싱턴 아트 어소시에이션 갤러리, 워싱턴 디포, 미국

2001 단체전, 로버트 키드 갤러리, 버밍엄, 미국
마스터 셀렉션즈, 크랜브룩 아트 뮤지엄, 블룸필드 힐스, 미국
동물원: 현대 도자 속 동물의 형상, 코비반트 갤러리,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탬파, 미국
NCECA의 동물원, 가스통 컬리지 아트 갤러리스, 댈러스, 미국
미시간 에뉴얼 XXIX, 안톤 아트 센터, 마운트 클레멘스, 미국

2000 셀러브레이트 클레이, 로렌스 스트리트 갤러리, 폰티액, 미국
나우 + 덴, 크랜브룩 아트 뮤지엄,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블룸필드 힐스, 미국
크래프트 폼스, 웨인 아트 센터, 웨인, 미국
페이싱 이스트, 하몬드 뮤지엄 & 일본 정원, 노스 살렘, 미국
써컴스텐셜, 아트스페이스 하트퍼드, 하트퍼드, 미국

1999 더 스타스, 아트스페이스 하트퍼드, 하트퍼드, 미국
에이즈에 대항하는 작가, 린콜른 스퀘어 시어터,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어바웃 페이스, 차터 오크 컬처럴 센터, 하트퍼드, 미국

1998 우드 메모리얼 비엔날레 `98, 우드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 뮤지엄, 사우스 윈저, 미국
컨템포러리 비전 `98, 더 갤러리, 브리지포트 대학교, 브리지포트, 미국

소장

데노스 뮤지엄 센터, 트래버스 시티, 미국
파워롱 뮤지엄, 상하이, 중국
브리지포트 대학교, 브리지포트, 미국
하트퍼드 대학교,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마디병원, 서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마이애미, 미국

03053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리조트 월드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미국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뉴욕, 미국

피델리티 투자사 아트 컬렉션, 보스턴, 미국

W 호텔스, 샤먼, 중국